

교육부의 ‘예술 및 체육 평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권 덕 원*

차 례

I. 배 경

II. 무엇이 문제인가?

1. 음악, 미술, 체육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진다.
2. 입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3. 전인교육의 교육이념에서 더욱 멀어지는 교육이 된다.
4. 특정 그룹의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유리한 평가 제도이다.
5.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잘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6. 음악, 미술, 체육 교사들의 평가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7. 음미체 평가개정만으로는 사교육비가 감소되지 않는다.

III. 결 론

1. 개정안 철회
2. 9등급 상대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3.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재검토
4. 전인교육을 향하여

* 본회 회장 · 경인교대 교수

I. 배 경

고등학교의 평가 기록 방식이 현재와 같은 9등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모든 과목을 5등급(수·우·미·양·가)으로 기록하였고, 각 등급의 비율을 각 학교에서 임의로 정하는 제도였다. 즉 그것은 모든 과목을 5등급으로 표시하는 일종의 ‘절대평가’ 방식이었다. 이 제도가 왜 문제가 되었을까? 각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대학입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내신 부풀리기’를 시도하였고, 나중에는 어느 과목의 경우 ‘수’를 90%의 학생들에게 주는 사례가 생길 정도로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도는 와해되었다. 내신 부풀리기가 전국에 확산되자 학교 성적에 대하여 학생들, 학부모들, 학교, 정부, 대학들… 그 어느 누구도 학교에서 주는 성적을 믿지 않게 되었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상대평가 9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존의 5등급제를 더 세분화하여 9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의 학교 내 비율을 한정함으로써 ‘상대평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을 전 과목의 성적을 9등급으로 받게 되었고, 음악, 미술, 체육의 성적도 9등급으로 받음과 동시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우 좋지 않은 등급의 성적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극성을 부리던 ‘내신 부풀리기’는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2가지 면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하나는 학교간의 차이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학교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의 상대적 차이는 철저히 구별해 내면서도 학교간의 상대적 차이는 전혀 인정하지 않음의 결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A학교에서 영어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성적이 B학교의 영어 성적과 비교해 보면 겨우 4등급밖에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학교간의 상대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내신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두 번 째 반발은 학교의 모든 과목 성적이 상대평가화 되다 보니, 학교생활 전체가 성적을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성적을 포기해 버린 학생들의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그 외의 모든 학생들은 학교생활 전체(시험, 숙제, 출결, 수업태도 등)를 성적과 연결시켜

야 했고, 따라서 학교생활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다.

9등급 상대평가제도가 고등학교에 도입된 후 사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내신 성적을 높여 준다는 학원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제 고등학생들은 수능준비는 물론, 학교의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더 많이 학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교육 부담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엄청난 사교육 시장의 규모에 관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사교육 시장의 규모도 줄이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묘책'이 무엇일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가시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을 상대평가 9등급제로 운영하는 현 상태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모든 과목의 등급의 수를 줄이고(예컨대, 5등급이나 3등급으로), 모든 과목의 평가를 절대평가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이 방식은 바로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몇 개의 교과만을 선택하여 그 선택된 과목의 등급 수를 줄이고, 그 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의 과목들 중에서 일부는 9등급 상대평가제도로 유지되고, 선택된 과목들은 3등급 절대평가 제도로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일부 경감된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 중에서 후자를 택하였고, 불행하게도 '음악' 과목은 이 원하지 않는 '선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9등급 상대평가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해결해 보겠다는 정부의 입지는 나아졌지만, 그 과정에서 음악, 미술, 체육 교과들의 현실은 더욱 악화되게 된 것이다.

II. 무엇이 문제인가?

1. 음악, 미술, 체육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진다.

이번 교육부가 제시한 '음악·미술·체육 교과 평가 제도 개정안'(이하 '음

미체 평가개정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교육부는 본 제도를 통하여 음미체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이 제도는 음미체 교육의 '부실화'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음미체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9등급 상대평가제'는 학생들에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한 등급이라도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하여 어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생을 하고 있다(물론 성적에 대해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예외임). 학교의 모든 수업 시간이 경쟁 그 자체이며, 과제와 시험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의 과민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음악, 미술, 체육 교과와 점수를 '3등급 절대평가제'로 준다면, 바로 다음날부터 학생들은 음악, 미술, 체육 교과에 대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전혀 상관없는 과목들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 알았다면 결국 '9등급 상대평가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음악, 미술, 체육 교과와 비중을 낮춤으로써, 또는 이 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없애줌으로써 현행 고등학교 '숨막히는' 내신제도의 숨통을 터 주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음악, 미술, 체육 교과가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학교 교육에서 늘 그들의 자리에 밀려 있었던 음악, 미술, 체육 교과는 앞으로 더욱 어두운 자리로 밀려 나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관심권 밖으로 완전히 내몰리게 되었다.

2. 입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원래 학교의 내신 성적을 중시하고, 그 성적을 체계화하여 대학 입시에 반영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취지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무시하고, 대학 입시에 관련된 과목만을 공부하기 위하여 사설학원에 몰려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학 입시에 직접 관련되는 과목들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과

목들도 제대로 공부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9등급 상대평가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의 내신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간다는 측면에서 모든 교과에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안처럼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어 버린다면, 이제 학교 교육은 '비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즉, 앞으로 학교 교육은 다시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과목의 교육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 과목에 집중되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정상화 하겠다고 시작했던 내신제도는 결국 그 제도를 주장했던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적은 비중으로나마 학생들이 음악, 미술, 체육 시간을 인정하고 그 시간에 어느 정도 노력을 했었는데, 앞으로 학생들은 더 이상 그 과목들에 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과목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의 과목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입시 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오히려 더 가중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3. 전인교육의 교육이념에서 더욱 멀어지는 교육이 된다.

해방 이후 모든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삼고,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 왔었다. 그러나 이번의 음미체 평가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홍익인간과 전인교육의 이념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제도 이다.

전인교육은 결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입시 과목의 교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이 말은 정말 하면 할수록 웃음이 난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입시 과목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이 부담되고 싫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의 성적을 내신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이 과연 전인교육의 이념에 맞는 생각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음악, 미술, 체육이 그들에게 더욱 필요한 학습이라고 설득하여 잘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들의 양심적인 도리이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음악, 미술, 체육이다. 그래야 그들이 균형잡힌 사고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부담되고 싫어한다고 교육에서 무시한다면, 왜 굳이 학교가 존재하는가? 각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도록 오히려 사설학원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부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잘 못하는 과목,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을 더 잘 가르쳐서 그들이 ‘편식’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어, 이 사회에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곳이다. 이번에 발표된 음미체 평가개정안은 이런 점에서 전인교육의 이념에도 반대가 되고, 학교 교육의 목적에도 위배가 되는 제도이다.

4. 특정 그룹의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유리한 평가 제도이다.

크게 볼 때 학생들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학 입시 과목 성적 상	대학 입시 과목 성적 하
음미체 성적 상	I	II
음미체 성적 하	III	IV

I 그룹은 대학입시 과목의 성적도 좋고, 음미체 성적도 좋은 학생들이고, II 그룹은 대학입시 과목의 성적은 좋지 않지만 음미체 성적은 좋은 학생들이며, III 그룹은 대학입시 과목의 성적은 좋으나 음미체 성적이 안좋은 학생들이

고, IV그룹은 대학입시 과목 뿐 아니라 음미체 성적도 안좋은 학생들이다.

이번의 음미체 평가개정안은 위의 4그룹 중에서 특히 III그룹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이들은 그동안 음미체 성적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대학 진학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었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대로 진행된다면 이 그룹은 이제 음미체 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게 될 것이다.

문제는 I 그룹과 II 그룹인데, 이들은 이번 제도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아쉽게도 이 두 그룹에 속한 학생들과 부모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I 그룹의 학생들은 대학입시 과목의 성적도 좋고, 음미체 성적도 좋아서 지금까지 더 수월하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III그룹의 약진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경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II그룹은 비록 대학입시 과목의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음미체 성적이 좋았기에 학교에서 제법 인정받으며 생활을 하였고, 전체 내신 성적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기에 비교적 괜찮은 제도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들에게 유일하게 내신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음미체 과목의 평가가 절대평가화 됨으로써, 그들이 이 분야에서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II그룹에 속한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음미체 과목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그 내막을 알고 나면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IV그룹의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성적에 대한 기대가 처음부터 없었던 학생들이다. 이들은 이번 제도로 인하여 음미체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유익은 아무 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음미체 평가개정안은 위 도표상의 네 그룹 중에서 오직 하나의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제도로서, 특정인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인 것이다.

5.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잘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해방 이후 우리의 교육은 언제나 국어, 영어, 수학 잘 하는 학생들을 주목

해 왔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았고, 그 과목들을 못하는 학생들은 어디를 가나 주눅이 들어 지냈다. 그러나 음악, 미술, 체육을 잘 하는 학생들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단지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 정도로 간주되었다. 사람들은 '모든 학생들이 국영수를 잘 해야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음미체를 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편견을 흔히 갖고 살았다.

모든 학생들이 국영수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국영수는 '기본적'이고, 음미체는 '부가적'이라는 생각도 편견이다. 대학 입시에서 국영수 과목은 꼭 평가되어야 하고, 음미체 과목은 평가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편견이다. 그것은 마치 영양 섭취에서 '탄수화물은 필수이고, 단백질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간 육체의 성장에서 모든 영양소가 필수이듯이, 인간 정신의 성장에서 모든 분야의 교육도 필수이다.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가 해방 이후 학교 교육에서는 늘 무시되어 왔다. 그것도 소위 교육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다.

이번의 음미체 평가개정안은 음악, 미술, 체육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이제 학교 교육에서 음미체를 잘하는 학생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다른 학생들(음미체를 못하는 학생들)과 분별해 낼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3등급 절대평가'에 '서술식 평가'를 부가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아는 모든 음악교사들은 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다. 중학교 2-3학년을 맡는 음악 교사의 경우 책임 시수를 맞추려면 40명을 기준으로 18학급, 즉 720명에게 음악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720명의 학생들에게 일일이 서술식 평가를 해 준다는 것이 도대체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번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아마 교사들은 이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든지, 아니면 모든 학생들에게 거의 같은 내용의 '서술'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음악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미흡했지만 음미체 과목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학생들이 그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국·영·수 잘하는 학생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더욱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이공계에서는 수학과 과학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인문사회계에서는 어학이나 사회 내신 과목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현재 내신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이다. 그러나 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할 때 학교 내신에서 음악 과목 성적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내신 제도의 원칙과 전혀 반대의 방향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음악대학에서는 학교의 음악 성적이 변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학 본고사에 더욱 치중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 본고사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대를 해 왔는데, 이번 제도가 음악, 미술, 체육 분야의 대학이 다시 본고사 비중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음악 대학의 진학에 관한 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해 준 일은 거의 없었다. 음악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스스로, 입시 과목을 알아보고, 레슨을 받고, 따로 공부해서 음악 대학을 진학해 왔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교의 '음악 성적'은 그들이 학교에서도 음악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유일한 '단서'였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음악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각 고등학교에서 관심을 주어야 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도리어 국영수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제도를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것은 참으로 '교육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다.

6. 음악, 미술, 체육 교사들의 평가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음미체 평가개정안은 3등급 절대평가 및 서술식 평가를 기본 방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현실에서 '절대평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내신 부풀리기' 신드롬을 통해 대학 입시 앞에서 '절대평가'가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를 익히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의 3등급 절대평가는 결코 정부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음악 교사는 어느 학생에게도 '하'를 줄 수 없다. 또한 음악 교사는 '상'과 '중' 사이에서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건대 아마도 ‘상’ 90%, ‘중’ 10% 정도의 선에서 평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 10%의 기준은 오로지 ‘출석률’로 될 것임에 거의 틀림이 없다. 음악 시간에 결석만 하지 않으면 음악 성적을 모두 ‘상’을 받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평가를 하는가? 이번 개정안의 ‘내면적 취지’는 곧 ‘음악, 미술, 체육 교과에서는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음악 교사의 평가 권한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학습의 마지막 과정은 ‘평가’이다. 평가가 올바르게 될 때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기 장점과 약점을 알게 되고,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학부모들도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도와줄지 알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작된다면, 이제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음악, 미술, 체육 시간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알 방법이 없게 된다. 학생들이 거의 다 음악 성적으로 ‘상’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음미체 평가개정만으로는 사교육비가 감소되지 않는다.

사교육 시장의 대부분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대학 입시 과목에 집중되어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과목을 사설 학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음미체 평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는 줄어 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학 입시 과목에 집중되는 현상이 생겨서 사교육비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첫째로, 초등학생들은 음악, 미술, 체육 뿐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위해서도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을 절대 평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을 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교육비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둘째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초등학생들

은 방과 후에 학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음악, 미술, 체육 학원을 보내지 않게 되더라도 그들은 다른 과목의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초등학생들의 '사교육'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결코 음악, 미술, 체육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초등학생들이 음악, 미술, 체육 학원에 다니는 것은 도리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더 장기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음악 실기(피아노, 단소, 플루트, 바이올린 등)는 학생들의 평생 삶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내는 사교육비는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와는 달리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얻게 해 주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Ⅲ. 결 론

1. 개정안 철회

음미체 평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음미체를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 심지어 음미체를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한 일이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는 제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균형감을 잃은 학생으로 성장하게 된다. 학교로 보아서도 이 제도는 '전인교육'의 취지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교 교육을 더욱 더 입시 과목에만 집중하는 교육으로 몰아가는 것으로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반대되는 방향을 추구하는 제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는 빨리 철회되어야 하며, 보다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견지에서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9등급 상대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9등급 상대평가 제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학교에서 이미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을 심각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제도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교사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왜 그 제도를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는가? 모든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절대 평가를 하면 가장 좋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무리 좋은 절대평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들은 ‘내신 부풀리기’ 현상을 통해서 학교 교육에서 절대 평가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9등급 상대평가 제도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제도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학생들 사이의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학교 교육이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9등급 상대평가는 앞으로 반드시 어떤 행태로든 개선되어야 한다. 일부 몇 과목만의 평가 방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는 전면적인 평가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재검토

중고등학교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한다. 입시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평가는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9등급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음미채 평가개정안’으로 해결해 보려는 생각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이 생각은 도리어 음악, 미술, 체육의 교육상황만 악화시킬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교육부는 대학 입시의 무거운 짐을 대학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짐은 결코 교육부가 스스로 질 수 없으며, 또 스스로 질 필요도 없다. 각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학생 기록부를 작성해 놓으

면, 각 대학은 그 기록부를 참고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면 된다. 내신성적 반영 비율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대학 본고사도 각 대학에서 알아서 시행하면 된다. 내신성적 속에 있는 음악 성적을 반영하든 안하든 각 대학에서 필요한 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교육부에서 '획일적인 지침'으로 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일이다. 다만 고등학교의 평가 제도는 일관성있게 시행해야 한다. 일부 과목은 상대평가를 하고,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의 원리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평가가 좋은 평가라면 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과목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교육부는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각 학교들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각 대학이 할 일이다. 각 대학은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잘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해 나갈 것이다.

4. 전인교육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학교 교육의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놓여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은 주로 '기술'에 집중했을 뿐, '본성'에 집중하지 못했다. 교육을 '좋은 대학'에 가는 수단으로,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는 수단으로 여기는 한, '본성'에 충실한 교육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개인'에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고대로부터 끝이 없는 논쟁거리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에 제대로 논쟁거리가 되어 본 적이 없었다. 오로지 교육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음악, 미술, 체육 교육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려 하고 있다. 학생들이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는 과목, 학부모들마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교육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에 그런다고 치자. 그렇다고 교육의 본질을 운운하며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교육학자들과 교육정책가들마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일부 학부모들과 힘을 합쳐서 그 마지막 남은

‘외로운 한 작은 城’마저 함락을 해 버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교 체육 및 예술 평가 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대신, 앞으로 5개년 동안 학교 음악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매우 큰 돈이다. 해방 이후 정부에서 체육과 예술 교육을 위하여 그렇게 큰 돈을 계획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육 및 예술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1,000억원이 큰 돈이지만,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교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초등학교 5,733개, 중학교 2,999개, 일반계 고등학교 1,437개,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707개가 있다. 모두 합하면 10,876개의 학교가 된다. 1,000억원을 학교수로 나누면 한 학교당 약 900만원의 돈이 되고, 그것을 음악, 미술, 체육의 3개 분야로 또 나누면 음악 분야로 각 학교에 배당되는 재정은 약 300만원 정도이다.

어떤 학교에 300만원을 주면서 음악 교육 개선을 해 보자고 제안한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제안을 받아 보지 못한 음악교사들로서는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러나 평가 방식을 바꾸자고 한 것은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300만원을 안 받을지언정, 우리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상중하 절대평가’ 및 ‘서술식 평가’로서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